

보도자료	보도일시	2013년 7월 4일(목) 09:30 배포시
	담당자	허재준 KLI 고용정책연구본부 본부장 (02-3775-5570, hurjj@kli.re.kr) 최대우 KLI 기획조정팀 팀장 (02-3775-5531, dwchoi@kli.re.kr)
	배포일시	2013년 7월 4일(목) 09:30

이 자료는 기획재정부,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에 동시 배포됩니다.

KDI-KLI-OECD 공동 국제컨퍼런스 고용률 70% 달성을 위한 전략

- 일 시: 2013년 7월 4일(목) 09:30~17:00
- 장 소: 콘래드호텔 파크볼룸(5층)
- 주 최: KDI · KLI · OECD
- 후 원: 기획재정부 · 고용노동부

□ KLI는 KDI, OECD와 공동으로 7월 4일 ‘고용률 70% 달성을 위한 전략’을 주제로 「KDI-KLI-OECD 공동 국제컨퍼런스」를 개최, 정부의 ‘고용률 70% 로드맵’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한편, 국제기구의 경험을 중심으로 고용률 70% 달성을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함.

□ 컨퍼런스는 ‘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략’, ‘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전략’ 및 ‘청년고용의 핵심 쟁점과 과제’ 등 3개 세션으로 진행

- 1세션에서는 정부의 ‘고용률 70% 로드맵’의 구체적 내용을 공유하고, OECD와 ILO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고용창출 전략에 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

- 2세션에서는 한국의 여성고용 현황과 로드맵 전략, 양성고용 격차 축소를 위한 유럽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전략을 모색
 - 3세션에서는 최근 고용률 증가 부진의 원인과 이에 대응한 청년고용 증진전략을 모색하고, 해외의 청년고용 도제제도 사례 공유를 통해 정책시사점을 도출
- 이번 컨퍼런스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, 김준경 KDI 원장, 이인재 KLI 원장, 장룩 슈나이더 OECD 경제국 부국장, 레이몬드 토레스 국제노동기구(ILO) 국제노동동향연구소 소장, 프란체스카 베티오 이탈리아 시에나대학교 교수, 톰 카르멜 호주 국립직업교육연구센터 이사, 이재홍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, 이일형 G20 국제협력 대사, 김수곤 경희대학교 명예교수, 어수봉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,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, 남재량 KLI 연구위원 등 고용 관련 국내외 최고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가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

- ❖ **첨부 1. 프로그램**
- ❖ **첨부 2. 발표 요약**
- ❖ **첨부 3. 주요 연사 프로필**

❖ **첨부 1 프로그램**

시 간	일 정
09:00~09:30	등록
09:30~10:00	개회식 개회사 김준경 KDI 원장 기조 연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
10:00~12:30	세션 1.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략 의 장 김수곤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발 표 1. 고용률 70% 로드맵 이재홍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발 표 2. 창조경제: 고용 없는 성장의 극복 이일형 G20 국제협력 대사 발 표 3. 경기 하강기와 상승기의 고용창출: OECD의 경험 장 룩 슈나이더 OECD 경제국 부국장 발 표 4. 일자리 확대와 질적 개선: 최근 경험의 교훈 레이몬드 토레스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동향연구소 소장 패널 토론
12:30~14:00	오 찬
14:00~15:20	세션 2.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전략 의 장 어수봉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발 표 5. 한국의 여성고용과 로드맵 전략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 발 표 6. 유럽의 양성고용격차 축소: 바람직한 정책방향의 모색 프란체스카 베티오 이탈리아 시에나대학교 교수 토 론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주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
15:30~16:50	세션 3. 청년 고용의 핵심쟁점과 과제 의 장 어수봉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발 표 7. 최근 고용률 증가부진의 원인과 청년고용 증진 전략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 실장 발 표 8. 도제제도와 일자리 창출 톰 카르멜 호주 국립직업교육연구센터 이사 토 론 김안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

❖ 첨부2. 발표 요약

세션 1.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략

발표 1. 고용률 70% 로드맵

이재홍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

- 고용은 '성장과 복지' 선순환구조의 핵심이며, 취업자 수 증가는 국가재정을 늘리고 세대 간 부양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발표한 '고용률 70%' 목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음.
- 구조적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정체되고 있으며, 특히 선진국과 비교할 때 청년과 여성 고용률은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.
 - 장기간의 고용률 정체는 대기업·제조업·수출 중심의 성장, 남성·전일제 중심의 장시간 근로, 여성·청년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애로 요인 심화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함.
 -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여성, 청년층, 비경제활동인구 등의 구조적 취업애로요인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음.
- 고용률 70%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취업자 수 2,381천명, 연평균 476천명이 증가되어야 하며, 고용률 70% 달성의 핵심은 창조경제와 실근로시간 단축에 있음.
 - 1980년대 이후 취업자 증가 변동요인 분석결과, '성장을 통한 노동수요 증가 기여도'는 하락한 반면, "근로시간 감소 기여도"는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.

- 2017년까지 고용률 70%를 달성키 위해서는 기존 고용창출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함

□ 고용률 70% 추진 전략과 정책 과제

-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대거 창출
 - 5대 핵심부문(창업·창직·중소기업·서비스업·사회적경제)의 주요 정책을 하반기에 집중 발표하며, 일자리 창출 성과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토대로 한 고용영향평가를 거쳐 지원
-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을 통해 성장만으로는 부족한 일자리 창출 여력 견인
 - 장시간 근로 해소 + 유연근로 확산 ⇒ (일·가정 양립, 문화진흥, 내수확대) ⇒ 새로운 영역, 시간제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
- 저소득 취약계층,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, 장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로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
 - 우리나라 고용률 제고의 핵심은 근로빈곤층, 여성·청년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임.
- 이러한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모든 주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
 - 새로운 고용창출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는 노·사·정 모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므로, 이에 대한 수용과 역할 분담 및 책임성 강화

- 「국민 일자리 행복회의」, 「일자리지원협의회」, 「온라인 현황판」 등 체계적인 과제별 점검시스템을 구축하고, 일자리 창출 성과 중심으로 부처 및 자치단체를 평가함으로써 고용률 70% 달성 추진

발표 2. 창조경제: 고용 없는 성장의 극복

이일형 G20 국제협력 대사

- 지난 20년 동안의 고용 없는 성장(jobless growth)은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소득불평등을 초래한 구조적인 왜곡 등과 관련 있음.
 -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도 OECD 국가의 실업률, 특히 청년실업률은 평균 약 13%로 높은 수준이었음.
 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은 경기회복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으나, 경기 전망은 여전히 좋지 않으며 실업률은 중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임.
- 양적완화 조치 이후 추가적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되었음에도 경제 성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.
 - 공공재원이 한계에 이르기 전에 더 나은 경기회복 견인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급히 거시경제 정책의 유효성을 높여야 함.
- 고용 및 성장 저해요인 해소를 위한 구조적 개혁이 일어날 때 거시경제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됨.
 - 고용 없는 성장은 소득격차를 확대하고, 소비는 증가시키지 못하므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.
 -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전망 없이는 어떠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시장은 더디게 반응할 것임.
- 지속가능한 성장은 그 혜택이 고르게 분산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가계의 생활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때에 가능함.

- 균형 잡힌 고성장은 모든 경제주체에게 ‘지속가능한 성장 기반(enabling environment)’을 제공함으로써 이룰 수 있음.
- ‘지속가능한 성장 기반’은 모든 경제주체가 자유롭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으며 스스로 가치를 창조, 자립하는 것임.
- 이러한 성장 기반은 시장의 준칙을 확립하고 시장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차단함으로써 조성될 수 있음.
- 모든 경제 주체의 참여와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창의성 있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으며, 이는 미래 사회 생산성 향상의 기반이 될 수 있음.

□ 한국의 창조경제는 ‘지속가능한 성장 기반(enabling environment)’을 조성하는 것임.

- 창조경제는 보다 공정한 경제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내수요 촉진 및 창의성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함.

발표 3. 경기 하강기와 상승기의 고용창출: OECD의 경험

장 록 슈나이더 OECD 경제국 부국장

□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용률은 낮고, 근로시간은 매우 긴 국가임.

- 낮은 고용률의 주원인은 낮은 여성 고용률임.
- 이러한 노동투입 구조는 고령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경제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.
- 따라서 고용률 70%를 정책목표로 설정한 것은 매우 적절

□ OECD 국가들의 고용창출 경험

- 보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시간제 고용 기회 증가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증가시킴.
-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축소는 형평성을 제고하고, 고용을 증가시키는 한편 경기후퇴기의 고용감소 폭을 줄일 수 있음.
- 실업급여 혜택 범위 확대는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가에서 노동시장의 효율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남.
 -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장기실업을 경험한 이후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범위를 줄일 수 있음.
- 고용지원 서비스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실업기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매치를 개선함.

□ 고용률 제고 정책은 임금 및 생산성을 높이고,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을 강화함.

- 저숙련 근로자와 저생산성 사업체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소득 분배를 개선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
- 또한 조세와 사회복지제도 개편을 통해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함.

발표 4. 일자리 확대와 질적 개선: 최근 경험의 교훈

레이몬드 토레스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동향연구소 소장

- 지난 수년간 세계적으로 고용과 소득불평등은 상이한 양상으로 진행되었음.
 - 대부분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고용증가와 소득불평등이 다소 완화되었으나,
 - 선진국에서는 국가별로 상이한 양상이 나타남.
 - 호주, 캐나다, 뉴질랜드, 한국은 고용을 회복하고 있음.
 - 미국에서는 고용회복의 조짐이 나타남.
 - 반면 유럽은 고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.
- 현 상황에서는 경제정책을 통해 고용과 소득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.
 - 고용회복 중에 있는 국가들에서는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.
 - 경제활동 참가 지원정책, 정규직 전환 정책, 사회복지 정책, 최소 임금 인상은 고용과 성장을 제고하고 중산층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.
 - 경제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다수 선진국의 우선적 과제는 거시경제적 불균형 시정
 - 첫째,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, 이 과정에서 거시정책의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야 함.
 - 둘째, 지출 측면에서는 위기에 대응하여 노동시장 정책 및 사회복지정책을 보완해야 함.

- 셋째, 세입 측면에서는 조세기반을 확대하고 탈세 방지를 강화해야 함.
- 위기를 초래한 금융부문 비효율성의 시정은 고용과 성장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.
- 금융부문이 적절한 신용 배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며, 특히 소기업에 대한 신용배분이 부적절함.

□ 중장기적으로는 경제·사회적 격차 축소를 정책목표로 삼아야 함.

- 현재 확대되고 있는 경제·사회적 격차는 중장기적으로 경제회복을 저해할 수 있음.
- 대부분 국가에서 기업 수익성과 주식 시장은 이미 위기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었으나, 노동소득은 생산성 향상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.
-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수 있음.
- 또한 청년층과 여성 근로자들은 숙련수준과 기대에 상응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음.

□ 세계 각국에서 비약적으로 교육수준이 향상되었음에도 기대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합당한 일자리 제공은 향후 수년간 세계적으로 노동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.

세션 2.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전략

발표 5. 한국의 여성고용과 로드맵 전략

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

- 한국의 여성 고용은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.
 -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수준은 매우 크게 상승하였으나 경제활동 수준 향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.
 - 소득수준과 비교하더라도 낮은 수준임.
 - 2010년 경제활동참가율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54.3%이나 일본은 63.2%,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은 70% 이상으로 여성의 모성 활동 등 특수성을 감안하면 때 남자와 차이가 없는 수준임.
 - 영국 70.2%, 미국 68.4%, 독일 70.8%, 프랑스 66.3%, 이탈리아 51.1%, 호주 70.0%, 캐나다 74.2%, 스웨덴 76.7%임.
 - 선진국의 여성고용 증가는 기혼여성 고용 증가의 결과이나 한국에서는 기혼여성 고용증가는 부진하였으며 미혼여성 증가로 고용이 증가
 - 여성고용 신장은 선진국에서는 20세기적 현상, 한국에서는 21세기의 과제가 되고 있음.
- 고학력 여성의 경우 모성활동을 전후한 직장이탈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.
 - 청년층의 여성 경제활동은 주로 고학력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.
 - 여성의 직장 이탈 이후 노동시장 복귀는 저학력에서는 활발하나 고학력 여성은 거의 복귀하지 못하고 있음.

- 그러므로 성장원천인 여성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.
-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직에서 여성 비중이 낮아 선진국에 비하여 자원활용도가 낮으므로 인사관리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.
- 장시간 근로 지양, 여성 고용 확대, 생산성 향상에 기반한 성장 등은 모두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임.

□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로드맵 전략은 경력단절 방지와 재취업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.

- 육아휴직 제도 확충 및 정착, 대체인력 활용 확대,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일자리 중심 보육서비스 확충,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강화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
- 돌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근로여건을 개선하고,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

발표 6. 유럽의 양성고용격차 축소: 바람직한 정책방향의 모색

프란체스카 베티오 이탈리아 시에나대학교 교수, EU 전문가 그룹

- 2000~2008년 간 EU 27개국 여성고용이 1,150만명 증가했으나 이 중 절반이 시간제 고용이었음.
 - 2008~2012년의 경제위기 기간에도 여성 시간제 고용은 120만 명 증가하였으나 전일제 고용은 200만 명 감소했으며,
 - 2008년 경제위기 이전까지 시간제 고용은 육아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유럽고용전략의 핵심적 요소였음.
 - 경제위기 기간 중 시간제 고용은 ‘일자리 나누기(jobs sharing)’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되었음.
 - 지금까지의 추이에 따르면 시간제 고용을 활용한 고용확대 전략은 일정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으나 유의해야 할 측면도 분명히 존재함.

- EU의 유럽고용전략에서는 2003년 시간제 고용을 고용확대 수단으로 채택하였으나 국가별로 상이한 실천 양상이 나타남.
 - 덴마크에서는 고유한 기존의 ‘유연안정성(flexi-security)’ 모델과 별 차이가 없어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음.
 - 독일에서는 하르쯔 개혁 이후 활성화된 ‘미니잡(mini-job)’이 시간제 고용 확대에 더욱 확산됨.
 - 일정 수준이하의 저임금 고용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크게 감면함으로써 미니잡 여성 취업이 크게 확대

- 이탈리아에서는 시간제 여성고용이 전일제 고용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는데, 이는 노동시장개혁(Legge Biagi)으로 시간제 고용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 데에도 기인하였음.

□ 시간제 고용 확대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간제 고용의 장단점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,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.

- 덴마크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에서 시간제 고용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균형을 이루었음.

- 반면 시간제 고용이 단기간에 크게 확대된 국가들에서는 일자리의 질과 재정부담 면에서 시간제 고용의 부작용도 노정되었음.

- 독일에서는 미니잡의 저임금 함정 문제가, 이탈리아에서는 비자발적 시간제 취업 비중이 확대되었음.

- 2000년대 EU의 시간제 고용 확대 전략은 보육을 보조함으로써 여성 취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이었으나 가사분담 측면을 고려치 못한 맹점이 있음.

□ 새로운 유럽고용전략(Europe 2020)에서는 조세와 혜택 측면에서 근로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있음.

- 여성 고용 확대와 가사 분담 확대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키 위해 여성 근로에 대한 조세혜택, 근로장려세제(EITC) 등을 도입

세션 3. 청년 고용의 핵심쟁점과 과제

발표 7. 최근 고용률 증가부진의 원인과 청년고용 증진 전략

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 실장

- 지난 10년간의 고용률 상승 정체는 청년 고용률이 하락한 데에 기인
 - 우리나라 고용률은 2002년 60%에 도달한 이후 계속 60% 미만에 머무르고 있음.
 - 청년 고용률은 2002년 이후 한동안 약 45%를 유지하다가 2006년 급감하기 시작하여 2012년 40.4%에 이름.
 - 청년 고용률이 하락하지 않았다면 전체 고용률은 3.12%p 상승하였을 것이나, 청년 고용률 하락이 전체 고용률을 3.74%p 떨어뜨림으로써 전체 고용률이 0.62%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- 청년 고용률의 하락은 20~24세 연령집단에서 주로 일어났으며 이는 이 집단의 대학진학률이 증가하였기 때문임.
- 정부의 '고용률 70% 로드맵'은 고용률 70%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청년고용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음.
 - (1) 취업에 바탕을 둔 직업훈련시스템으로 전환
 - (2) 스펙보다는 잠재력과 열의를 평가하는 채용시스템 구축
 - (3) 한국형 「학습 - 근로 Dual 시스템」 도입
 - (4) 대학의 학습-근로 연계 기능 강화
- 이밖에도 대학특성화 정책, 공개채용 촉진, 인사관리 개선 등이 중요
- 고용률 70%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로드맵을 철저히 수행하는 데 더해, 지속적인 진척 상황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.

발표 8. 도제제도와 일자리 창출

톰 카르멜 호주 국립직업교육연구센터 이사

□ 호주의 도제 제도와 일자리 창출 효과

- 훈련과 실무가 통합된 호주의 도제제도는 적용되는 직업의 범위가 넓고, 정부 지원이 제공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.
- 도제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히 수료율을 높이는 데에 앞서, 직능 수준 제고, 취업경험 부여 등 제도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.

❖ 첨부3. 주요 연사 프로필

세션 1.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략

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

- 現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
- 前 OECD 고용노동사회국(ELS) 고용분석정책과(EAP) 프로젝트 매니저

이일형 G20 국제협력 대사

- 영국 워릭대학교 경제학 박사
- 現 G20 국제협력 대사
- 前 IMF 중국사무소 소장

장-록 슈나이더 OECD 경제국 부국장

- 現 OECD 경제국 부국장
- 前 프랑스 재무부 차관보
- 前 OECD 경제정책위원회 작업반 부의장
- 前 EU 재무장관 이사회(ECOFIN Council) 경제정책위원회 위원
- 주요 연구 분야: 경제구조개혁정책, 재정정책, 미시경제정책

레이몬드 토레스 국제노동기구(ILO) 국제노동동향연구소장

- 現 국제노동기구(ILO) 국제노동동향연구소 소장
- 現 ILO "근로의 세계"(World of Work Report) 편집장
- 前 OECD 고용노동사회국(ELS) 고용분석정책과(EAP) 과장
- 前 파리 제1대학 거시경제학 부교수
- 주요 연구 분야: 고용전략, 노동경제학, 계량경제학

세션 2.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전략

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

- 미국 시카고대학교 경제학 박사
- 現 KDI 재정·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
- 前 기획예산처 장관정책보좌관
- 前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
- 주요 연구 분야: 노동시장정책, 사회복지정책

프란체스카 베티오 시에나대학교 교수

-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경제학 박사
- 現 이탈리아 시에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
- 現 '유럽 양성평등 전문가 네트워크(ENEGE)' 선임코디네이터
- 주요 연구 분야: 노동 및 여성고용 경제학, 인구경제학, 사회제도 경제학

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

- 미국 위스콘신메디슨대학교 소비자가족경제학 박사
- 現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
- 주요 연구 분야: 가족 경제학, 가계 내 의사결정 문제

김주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

- 미국 위스콘신메디슨대학교 경제학 박사
 - 現 산업연구원 연구위원
 - 前 노동연구원 연구위원
 - 주요 연구 분야: 공공경제, 노동경제
-

세션 3. 청년 고용의 핵심쟁점과 과제

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 실장

-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
- 現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 실장
- 前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
- 주요 연구 분야: 노동경제학, 청년고용, 여성노동

툼 카르멜 호주 국립직업교육연구센터 이사

- 호주국립대학교 경제학 박사
 - 現 호주 국립직업교육연구센터(NCVER) 이사
 - 주요 연구 분야: 노동시장 및 교육경제학
-